

退溪學統과 「上總道學」**

松戸光夫*

● 目 次 ●

- | | |
|-------------|-----------------|
| I. 上總道學 | IV. 默齋의 敎學 |
| II. 默齋의 生涯 | V. 默齋歿後의 「上總道學」 |
| III. 默齋의 人品 | |

I. 上總道學

山崎闇齋로 말하면 江戸초기의 朱子學者로서 이른바 「崎門學」, 「闇齋學」의 시조인데 그 門流의 성대함이 딴 데 비길 수 없을 정도의 대학자였고 江戸시대의 사상계 교육계의 주류로 활약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 제자 佐藤直方, 이 분도 식견이 높고 개성이 풍부한 위대한 哲人 이었다고 한다. 스승 闇齋도 물론 그런 인물이었으나 특히 이퇴계를 尊崇하여 朱子 이래의 일인자로서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 直方의 門人 稻葉迂齋가 默齋의 부친이다. 稻葉默齋는 上總(千葉縣)의 시골 學舍에서 무려 20년의 오랜 시일을 敎學에서 힘써 迂齋, 默齋의 學統이 東金·成東 주변의 지역에 번창하여 이른바 「上總道學」 또는 南總道學이란 이름을 역사상에 남기게 된 것이다.

佐藤直方의 門人에 酒井 脩敬이라는 이는 幕府 「代官所」에 다니는 무

* 일본 퇴계학회

** 퇴계학연구원, 『퇴계학보』 제2호(1974) 게재논문

사였다. 당시 成東町의 作田川에 걸쳐 있는 成東大橋(銚子街道)는 막부의 直轄이었다. 이 다리를 고쳐놓을 때에 이 酒井脩敬이 출장와서 그 지음에 이 지방 「名主」들에게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학문을 일으켜야 하며, 그 바탕을 만들기 위해 학문을 좋아하는 청년을 江戸에 유학시킬 것을 권한 것이 계기가 되어 和田義旦, 鈴木養察 두 사람을 同門인 汚齋에게 소개하여 입문시키게 된 것이다. 때는 1727년(享保12년)경이었다.

이 酒井脩敬로 말하면, 鈴木養察의 손자로서 후에 上總道學의 중심인물이 된 鈴木養齋가 쓴 手記『大順堂雜稿』에 의하면 「성품이 조용하고 廉梁, 知見이 있어 그의 志氣가 남다르다」라고 해서 하급 관리 축에서는 보기 드문 인물이었던 것 같다.

和田은 下總酒酒井 출신으로 成東에 와서 定住하여 의사를 하던 사람이고 鈴木은 上總姫도(현재 成東町)의 농가출신이었다. 이 두 사람이 모두 好學의 人이었다. 和田은 醫業에 종사하여 經學의 소양을 가지고 있었으나, 鈴木은 가난해서 외가집 신세를 지고 있는 처지였으나 학문을 즐겨 독학으로 四書도 다 읽었다고 한다. 그리하여 이 두 사람은 江戸서 공부하고 귀향한 후에는 上總道學의 선도적 시조가 된 것이다.

그 후 成東·東金부근의 好學之士들은 속속 江戸에 나가 迂齋의 문하에 들어갔다. 그 가운데서 뒤에 「上總八子」라고 불리우는 다음 8명의 인물이 유명하다.

鈴木養察, 姫島(오늘의 成東町)
 櫻木清十郎 (闇齋)東金,
 安井武兵衛 成東
 安井半十郎 小松(오늘의 成東町)
 布留川彌右衛門 片貝,
 鵜澤幸七郎 (近義)清名幸谷 (오늘의 大網白里町)
 平山安左衛門 早船(오늘의 成東町)
 鈴木兵右衛門 折戸(오늘의 松尾町)

이 8인 중의 櫻木(闇齋)은 長崎聖堂의 교수가 되어 『長崎在勤日記』를 써서 그 일기가 현재 東京大學에 보존되어 있다.

그 밖에 鵜澤容齋(近義의 父), 同由齋(近義의 兄) 清名幸谷, 小川有義, 東金, 篠原惟男 福俵(現東金市), 鈴木恭節(近義의 아들) 清名幸谷—이들도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이처럼 「九十九里濱」 연안의 농촌에서 속속 迂齋의 門人이 배출된 것은 酒井脩敬과 같은 이에 의해 계기가 마련된 것이 기연이라고 하더라도 그 배경으로서는 이 지역의 농어업이 풍요한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는 탓으로 경제적으로 유복하여 好學의 기풍이 넘쳐 흐를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默齋이 이 고장을 終生의 땅으로 택한 것도 그 때문이었을 것이다.

사실 당시 지방의 유복한 豪農이나 護喪은 學者文人의 來遊를 환영했고 이들을 자기 집에 묵게 하는 것을 자랑으로 아는 터였으나 그와 동시에 周遊하는 학자들도 유명한 이들의 재산과 명성을 통해 그들의 사상학문을 지방에 전파시키려고 했던 것이다. 東金지방에는 佐藤信淵·柳川星巖, 干潟中和 지방에는 大原幽學 혹은 平田篤滌派의 「國學」이 上總·下總지방 사람들 이에 많은 문인을 획득한 것 등 그 예가 적지 않다.

默齋의 清名幸谷定住를 간청한 것은 鵜澤近義였고 그 뒷바라지를 도맡은 것은 清名幸谷의 名主人 鵜澤一族의 었다.

鵜澤近義의 부친 容齋는 뒤에 佐藤信淵이 다녀간 寓居한 大豆谷村(東村市)의 鈴木甚左衛門의 아들로서 鵜澤家を 계승하여 家事에 精勵하여 60세를 넘은 나이에 迂齋에 입문하여 자기의 두 아들 由齋, 近義도 마찬가지로 입문케 했다. 迂齋의 歿後에는 由齋의 아들 七藏, 近義의 아들 鈴木恭節, 그의 아들 恭因도 뒤이어 默齋의 門下에 들어와 祖父孫子가 대를 이어 上總道學의 기둥이 되었다.

1781년(天明 6년)에 默齋의 清名幸谷定住 때에는 벌써 容齋는 세상을 떠나고 아들 近義도 어언 62세였으나 성심껏 恩師를 돌보았다. 10년

후 1791년(享政 3년) 9월 72세로 별세했다.

이상이 稻葉默齋이 清名幸谷(현재의 大網白里町)에 定住하게 된 배경이다.

II, 默齋의 生涯

默齋는 1732년(享保 17년) 11월 10일 江戸山伏井(日本橋濱町)에서 태어났다. 姓은 越智稻葉氏, 諱는 正信, 通稱又三郎, 默齋는 그의 호이다. 혹은 矢倉小孤松老人이라고 했다.

그의 부친은 迂齋, 諱는 正義, 通稱은 十左衛門, 下總古河藩土井侯 아래로 들어갔다. 모친은 武井氏, 그녀의 차남이다. 兄은 廓齋, 諱는 正直, 通稱은 鐵四郎, 후에는 土浦藩에 들어갔다.

어린시절부터 朱子學을 부친한테서 배웠으나 몹시 신체가 쇠약했다고 한다.

16세, 부친의 분부로 부친의 兄弟子인 本所石原의 野田剛齋의 門下에 들어갔다. 君子는 자식을 장소를 바꾸어 가르친다(孟子)는 것의 실천이다. 剛齋에 의해서 엄하게 공부하고 몸가짐을 익혔다고 한다. 그 덕분에 20세 때에는 벌써 세상에 알려진 인물이 되었다.

21세, 부친 迂齋의 門人, 上總八子の 연고를 더듬어 처음 上總에 와서 강의를 했다. 姫島 鈴木養察宅에서 강의를 행했다고 해서 세상에서는 「姫島講義」라고 한다. 『孤松全稿』의 권두에 실려 있고 자필의 원본이 현재 成東町の 元倡寺에 보존되어 있다.

25세, 江戸若松町에 別居하여 문인들에게 학문을 청했다.

29세, 부친 迂齋 별세, 그 후 迂齋의 門弟 모두를 가르치게 되다.

32세, 本所半島로 거처를 옮기다.

41세, 京都에 가서 久米訂齋와 만나다. 訂齋는 佐藤直方の 제자 三宅尙齋의 문인이요, 당시 80대였다고 한다. 당시 서쪽에 久米訂齋, 동쪽에 稻葉默齋라고 병칭될 만큼의 大儒가 되어 있었다. 이 지음의 일을 「

訂齋先生은 오늘에 각별한 품격 그 밖에 五黨의 諸儒는 모두 末世浮薄의 기풍을 받다」라고 쓰고 있다. 이 때에 尙齋의 귀중한 典籍을 받아가지고 돌아오다.

47세, 淸名幸谷에 來遊, 上總八子の 1인 鵜澤近義를 방문하다. 이 때부터 上總에 永住할 것을 마음먹은 듯하다.

50세, 때는 1781년(天明 6년) 저 역사적인 大飢饉이 시작되기 전 해이다. 淸名幸谷에 鵜澤近義에 의지해서 이주하여 거처를 짓고 마당 앞에 소나무 한 그루 세워 孤松庵이라 했다. 落郷이 아니라 학문을 大成할 목적으로 번잡하지 않은 고장이 좋으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 후 약 20년간, 江戸에 나간 것은 불과 세 번, 63세, 64세, 67세 때 뿐이었다. 江戸에 가면 연고가 깊은 新癸田의 溝口候, 館林의 松平候, 桑名の 松平候 등에 進講하고 있다.

孤松庵에서는 오로지 門人을 가르치고 한편으로 語錄의 저술, 先師先輩學友의 遺著의 편찬에 힘썼다. 이 즈음에 江戸 諸藩의 자제 중 가르침을 받으러 온 자가 아주 많아서 門前成市의 감이 있었다.

68세, 1799년(寬政 11년) 11월 27일 殞命 「내가 죽으면 세상의 학자들이 아마 떠들 것이다」라고 말하고

恭惟千載之心 敬者是心之貞
聖人惠是道心 秋月照寒水

라는 말을 孤松全稿 68錄의 絶筆로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Ⅲ. 默齋의 人品

默齋는 유교의 가르침에 온 생명을 바친 사람이었다. 학문연구에는 아주 까다롭고 성품이 豪邁·勸力에 굴하지 않고 절조를 지키며 인격이 고결하여 생활태도는 매우 곧았다. 남에게는 예의바르고 겸손하여 자기

를 내세우지 않았다. 때문에 남한테 원한을 사거나 수모를 받은 일이 없었다. 默齋는 항상 「남들이 자기의 흉을 보는 것은 자신의 태도가 올바르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스스로를 징계했다. 그 반면에 유머가 풍부하여 門弟와 가족을 사랑한 것은 門人의 筆錄에서도 잘 알수 있다.

默齋 門下의 俊才로 후에 一家를 이룬 武州忍藩의 奥平定時(栖遲庵)가 默齋의 인품을 알 수 있는 좋은 자료이므로 이에 그 일부를 소개한다.

寬政癸丑 정월9일啓行 그날밤 下總登戶에 머문 다음 오후 上總福俵군의 里正, 北田慶年宅에 도착하다. 慶年은 定時한테 음식을 대접받다. 식사를 들고 목욕을 하고 예복을 정장한 다음 慶年과 더불어 孤松庵에 이른다. 정월 10일 처음으로 선생을 배운다. 선생은 定時가 예복 상하로 정장한 것을 보고 말했다. 「아주 진기한 것을 보는구먼」 慶年을 돌아보며 말한다. 「이렇게 근방에서 예복 상하로 차린 사람을 보면 默齋이 죽거나 장례식이라고 할 것이다」

다시 말을 이어 「얼마 동안 머물려고」 定時 대답하기를 「50일간 머물렵니다」 선생 말씀이 「부모님 슬하를 떠나 100이나 먼 데 왔으니 이번에는 대번에 달려가고 싶겠지만 아무리 코 닿는데 있어도 외톨이로 집을 떠나 왔다는 것이 100리를 떠나 여기 왔다는 것보다 더 심려가 되겠지, 우선 한 20일간 있어보지, 그대신 내가 성의를 다해 힘써 해보지, 문리가 퇴게 되면 더욱 좋고. 어쨌든 이번에는 20일간 있다가 돌아가고 또 4월경에 와도 좋다.

女婢가 술을 데워서 내놓다. 처음부터 각 잔이다. 선생님의 말씀이 「자네 술하나」 「조금합니다」 선생님의 말씀이 「조금 드는 것은 좋다」 慶年 定時 각 두 잔을 들다.

선생은 용모단장하고 풍채가 수려하여 위엄이 있다. 그러나 放談은 그칠 줄 모르고 그 온화함이 春風같다. 定時에게 말하기를 「자네는 인색한가」 定時は 대답 않는다. 선생은 웃으며 말씀이 「迂齋도 역시 인색한 편이었지 학문은 인색하지 않으면 안되는거야(중략)」 말씀이 계속되어 「우선 자기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해. 남을 아는 것을 知라 하고 자기를 아는 것을 明이라 했어. 제 자신도 모르고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모두 헛것이야」

이상이 定時와 선생과의 첫 대면때의 대화이다. 默齋의 농담섞인 이야기 속에 많은 교훈이 숨어 있으며 그의 비범한 풍격을 잘 알게 된다.

默齋는 평생 독신으로 지냈으나 아주 깔끔한 성품이어서 자신의 몸수선은 깨끗이 했다. 아침에 일찍 기상하고 목욕하고 머리손질하고 손톱을 자르기를 하루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옷은 터진 것 하나 없고 책장, 筆筒, 그 밖의 도구, 식기류를 마치 자로 잰 듯이 정돈해 놓았다고 한다.

물론 자녀는 없었으나 형 廓齋의 아들 둘을 데려다 키웠다. 형님은 土浦藩에 봉공하고 있어서 바쁘다고 해서 자식들을 맡기고 간 것 같다. 둘 중 동생쪽은 정신박약아였다. 「十二」라 해서 「十二」「十二」라고 귀여워했다. 강의하는 구석에서 수선스럽게 굴 때도 제자가 「조용히 있게 하지요」라고 말하면 默齋는 「이 애가 떠들고 잘 놀면 기분이 좋으나 가만있으면 보고 있을 수가 없단 말이야…」라고 눈시울을 붉혔다고 했다. 참으로 정겨운 사람이기도 했다.

IV. 默齋의 敎學

默齋의 학문은 앞서 지적한 것처럼 「闇齋學」이요 朱子學이다. 闇齋의 門人은 6천명이라고 한다. 그 가운데서 佐藤直方, 淺見綱齋, 三宅尙齋가 걸출한 제자였고 각기 闇齋學을 講했다. 이 셋을 「崎門三傑」이라고 하고 그 후 崎門도 3파로 나누어 졌으나 그 直方の 제자가 稻葉迂齋이다. 直方은 스승 闇齋가 그러했듯이 조선의 이퇴계를 가장 尊崇하고 그 학문에 공명하고 높이 평가하고 있음은 유명한 사실이지만 특히 주목하고 싶은 것은 다음에 적은 「冬至文」이다. 이 「冬至文」은 유달리 걸출한 門弟 稻葉迂齋, 野田剛齋 永井隱求에서 자기가 믿는 바 학문의 要訣을 가르치려고 지은 글로서 「李退溪 이후에는 실로 이 길(道)을 짚어질 자가 없다」고까지 말하여 그 학문을 권장하고 있다.

— 冬 至 文 —

道之廢而不_レ行猶_下擔物之捨_中置地上_上也若有_三其人出_二於其時_一則任_レ之而使_レ不_レ永墜_レ地矣今務_三聖學_一者乃擔夫也俗學之徒則路中之游手耳何足望_三道之任_一乎朝鮮李退溪之後欲_レ負_二荷此道_一者吾未_レ聞_レ其人焉中庸序所_レ謂吾道之所_レ寄不_レ越_三乎言語文字之間_一正謂_レ此也我邦自_レ古至_二乎今_一欲_レ任_三此道_一者幾人也耶二三子有_レ志_三於聖學_一矣乎無乎若果有_三其志_一則堅_三立春梁骨_一可_下以願_上學孔孟_一矣曾子不_レ云乎士不_レ可_三以不_レ弘毅_一任重而道遠仁以爲_レ已任_レ不_レ亦重乎死而後已不_レ亦遠乎豈悠悠徘徊終_三歲月_一與_三夫游手浮浪之徒_一爲_三伯仲_一哉享保丙申冬至日直方書_レ之與_三鈴木正義野田德勝永井行達_一以勵_三其志_一云

鈴木正義란 稻葉迂齋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이 「冬至文」은 默齋가 전술한 3인의 遺文을 부쳐서 表彰하여 默齋의 道流를 이은 사람들은 1925경까지 이 冬至文을 읽고 수양에 힘썼다. 뒤에 소개하는 默齋忌日마다 아직도 이것을 읽곤하는 것이다.

迂齋도 역시 直方門下의 제일인자였으나 동시에 綱齋나 尙齋한테도 問學하였으므로, 崎門 3파의 學을 고루 익힌 셈이다. 그의 아들 默齋는 부친의 학문을 훌륭하게 계승 闇齋學의 집대성자라고 불리워진다.

한 때는 湯島聖堂의 교수로 추대되었으나 그것을 固辭하고 있다. 철저한 朱子學者이지만 詞章記聞의 學을 싫어하고 實踐躬行을 이상으로 했다. 진실로 「英才를 교육함을 필생의 業으로 한다. 그 門風의 峻, 心術의 嚴, 道學의 泰斗 萬世의 師表가 되는」(情名幸谷沿革誌) 인물이었다.

默齋의 孤松庵의 입구에 「소개없는 자는 입문시키지 않는다」는 뜻의 貼紙를 붙여 학문하는 사람 이외에는 출입을 삼가하게 했다. 그러나 열심으로 학문을 구하는 이에게는 항상 친절하게 道를 講했다. 문인이라도

농민에게는 농사에 힘쓰도록 하고 때때로 잘못이 있어도 꾸짖지 않고 스스로 잘못을 깨우쳐 과오를 뉘우칠 때까지 문책하려 들지 않았다. 학문의 규율을 어기는 것, 도덕을 훼손하는 자에게는 대노하여 큰 소리로 힐책했다. 默齋의 학문은 「道學이 모든 것의 근본이다」라는 신념에서 학문의 완성을 표방했다.

闇齋學이라고 해도 神道나 勤王에 대해서 편파적인 설을 제창한 일이 없었다. 순연한 철학자요 이 점 佐藤直方の 학문과 같이 적극적으로 理를 탐구하는 철인의 學과 다를 바 없었다. 奧平定時는 「默齋선생한테서 학문하기를 결심했다 崎門 3파는 학문의 취향을 각기 달리하면서도 그 요지는 거의 동일함을 선생한테서 교시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다.

門人에는 武士나 富農만이 있는 것이 아니었다. 堀上村(現東金市)에 中田重次란 門인이 있었다. 大酒豪에다 도박꾼으로 막무가내의 사나이였으나 이 사나이를 訓化하여 학문에 힘쓰게 하여 훌륭한 제자로 만들었다. 이 사람이 1798년(寬政 10년) 默齋에 앞서 세상을 떠났을 때 못내 슬퍼했다고 한다. 임종 때에도 重次를 잊지 않고 아까운 제자를 일찍 잃은 것을 아쉬워했다고 전해진다.

이 점에서 보아도 默齋는 범연한 유학자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폭이 넓고 깊이있는 인간교육이 그의 목표였다. 그의 학문이 「道學」이라고 불리우는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남 앞에 머리를 굽히기를 싫어하고 陶淵明을 좋아하는 시인풍의 사람이었다. 명리를 가볍게 여긴 그는 江戸를 버리고 江戸의 학자들한테 「東海에 멀어져가는 바를 모른다」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上總의 벽촌에 은퇴한 것도 결국은 참다운 자유가 그리웠기 때문이다.

孤松庵에 은퇴한 다음에도 館林, 唐津, 土浦, 新癸田, 姫路, 丸龜의 諸侯로부터 후한 禮를 갖추어 招聘의 使者가 왔으나, 講學하러 가기는 했으며, 幕下에 들어가기를 고사하고 마침내 응락하지 않았다. 그 중에서도 특히 新癸田의 溝口活軒侯는 부친 迂齋의 문인이었던 관계로 아주 신망이 두터워 정치적으로도 의견을 청취하는 처지였다. 더구나 『默齋語

錄』을 스스로 筆錄하고 있었을 정도였다.

또한 館林의 松乎侯는 默齋의 『四書或問抄略』을 출판하여 수차 서찰을 내어 정치에 관해서도 의논하고 있다. 藩校도 默齋가 朱子學校라고 명명하고 대개는 道學館이라고 불리우고 있다.

上總의 생활은 즐겁기만 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형 廓齋의 두 아들을 맡아 기르고 자신도 特病으로 괴로와하고 물질적으로도 궁색했던 것 같다. 「나는 베푸는 것은 좋으나 받는 건 딱 질색이야 꾸어 쓰는 건 궁색스럽구」(林潛齋 『終焉記』)라고 하는 것이 그의 성격이고 보면 더욱 그러하다.

그가 사는 孤松庵에는 책상 옆에서 항상 한 켤레 집세기가 준비되어 있었다. 나들이를 싫어하는 默齋(그는 99里濱에도 雄蛇의 못—東金の 名所—에도 나가본 일이 없다고 한다)로서는 납득이 안 가는 처사였다. 林潛齋가 무엇 때문이냐고 연유를 물었더니 「당장이라도 이 고장이 마음에 안들면 나서려다」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이런 심정으로 있던 默齋는 결국 죽을 때까지 이 고장을 떠나지 않고 뼈를 묻게 된 것은 참으로 깊은 인연이라고 하지 않으면 안된다.

임종에 즈음하여 成東町の 元倡寺에 장사 지낼 것을 유언했다. 그것은 원래 默齋는 日蓮宗을 싫어하여 가까운 절은 모두 日蓮宗이었으므로 2리나 더 먼 곳에 있는 禪宗의 元倡寺를 택했다고 한다. 마지막까지 하나로 徵한 인간이었다.

V. 默齋歿後의 「上總道學」

默齋歿後 上總에 있던 수많은 門人の 內學脈의 系譜에 이름을 남긴 이만도 수십명에 이르고 花澤文次(林潛齋)는 堀上(東金), 北田慶辯은 福俵(東金)의 學思齋에서 鈴木養齋는 姬島(成東)의 姬島學舎, 그 밖에 篠原惟秀, 大木忠篤, 鈴木恭節 등 모두가 선생의 學을 祖述하고 道學의

研鑽에 힘써 많은 문인을 배출하여 그 지도에 임했다. 모두 師弟가 계속하여 道學의 전통을 지키고 遺跡墳墓를 지키며 오늘에 전하고 있다. 1926년(昭和初)경에 이르기까지 마을마다 많은 學塾이 있어 道學이 講해지고 있었다.

1800년(寬政 12년) 문인인 동시에 稻葉家와는 혼인관계도 있는 土浦藩(常陸)의 日原以道(手冢擔齋)가 元倡寺에 默齋의 묘비를 건립했다.

默齋의 正統을 계승한 이는 앞서 지적한 武州忍藩의 栖遲庵 奧平定時로서 그 道統으로부터 明治維新 전후에 몇몇 인제가 배출되어 이름을 남기고 있다.

奧平의 문인에 伊予松山の 三上是庵이 그 門徒에 上總의 石井周庵이 나왔다. 周庵은 東京 芝三田四國町에 時習學舎를 열고 제자를 가르치고 또한 전 일본의 崎門學者를 모아 1883년(明治 16년) 道學協會를 일으켜 講學도 하고 혹은 先師先輩의 遺著의 간행 또한 1897년(明治 30년) 默齋의 墓所를 重修하는 등 道學을 위해 크게 노력을 기울였다.

周庵의 門下에는 田原擔庵, 湯坂(成東) 伊庭弘道, 根藏(成東), 田中蛇湖 小野(東金) 등 諸氏가 있어 이들이 道學協會 南總支會의 幹事로서 道學의 진흥에 힘쓰고 그리고 伊庭弘道는 成東町長으로서 다녀간 町政에 종사하여 많은 업적을 남겼고 田原, 田中은 재질이 있으면서도 손수 농사를 지으며 스승 周庵의 沒後道學의 뒤를 지키고 학문을 닦아 책을 저술하고 直方「冬至文」의 정신의 진수를 발휘하여 道學이 실학임을 몸소 보여주고 후진의 교도에 힘쓰고 있다.

그 후 三氏가 간 다음 그 道統을 이은 이는 東京의 梅澤芳男, 池上孝二郎兩氏이며 兩氏에 의해 佐藤直方 이래의 道統상의 先哲들의 遺書編輯, 印行, 保存 등의 노력을 거듭하고 있으며 다시 梅澤氏의 끊임없는 노력에 의해 氏의 주선으로 元倡寺에서 매년 거르지 않고 11월 25일 默齋忌가 道緣으로 관련된 이들, 고을의 관계자들에 의해 거행되고 있음은 오늘날 흔히 볼 수 없는 사례이다.

東金市는 成東町 주변에는 오늘날도 好學之士가 많고 교육의 거리 東

金으로서 전 일본에 알려지게 된 원인도 역시 道學에서 연유한다고 본다.

默齋가 가신지 170여년. 孤松庵이 있었던 清名幸谷의 주민은 그 道學을 본받아 딴 고장과는 다른 데가 많다고 한다.

癸丑六月二十九日 與同志詣天倡寺 展默齋先生墓

安岡正篤篁竹茂林苔徑幽 森閑禪刹石庭修道明東展拾人墓
井立碑前語國憂

